

국토부-제2공항비상도민회의 1차 심층 토론회 쟁점

현 공항 확장 “가능하다” vs “불가하다”

국토부-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입장차 여전 ADPi 권고안 채택 여부 놓고도 국토부-도민회의 논쟁

현 제주공항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1차 심층토론회가 19일 제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가운데 국토부와 제2공항 반대측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공항의 확장가능성을 제시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에 대한 채택 문제 등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우선 국토부 측은 ADPi의 권고안으로는 제주도의 장애 항공수요 처리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며 현 제주공항 확장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병 국토부 정책관은 “ADPi는 19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국내 여건상 모두 실행은 쉽지 않다”며 “19개 권고안 중 15개는 부분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 효율성, 정시성 향상은 기대되지만 용량증대는 제한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정책관은 “19개 권고안 중 4개(교차활주로 운영, 분리간격 축소, 독립 평행항로 신설, 주기장 대폭 증설)는 제주공항의 악기상, 공항시설 제약, 국내 안보상황 등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김 정책관은 “현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는 길이가 1900m에 불과해 주활주로(3180m)에 비해 너무 짧아

안전한 이·착륙이 불가하다”면서 “보조활주로는 항행안전시설, 항공등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위험이 가중되며, 시정이 나쁜 날에는 도심상공 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관은 “기존공항 확장은 안전하지 않아 채택할 수 없다”며 “안전은 도전과제가 아니며 정부는 안전하지 않은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제2공항 추진 반대측은 현 제주공항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첨단 신공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

합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식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더라도 2017년에서 2067년 사이에 총인구는 5136만명에서 4834만명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의 진입하게 된다”며 “국내선이 90% 이상인 제주의 특성상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50년이 지나기 전에 관광객 감소로 항공 수요가 크게 줄어 제2공항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특히 뉴욕 라파디아 공항은 부지확장 없이 신개념 디자인을 적용한 터미널 재건축 등을 통해 미

국 최악의 공항에서 최고의 첨단 신공항으로 재탄생했다”며 “런던 게트워 공항, 파리 드골공항, 제네바 공항, 취리히 공항, 멜버른 공항 역시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을 활용해 공항 수용력을 증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첨단 관제·운영 시스템 도입과 터미널 이전 신축, 터미널과 연결된 접현 주기장 중심의 주기장 확대, 평행유도로 이중화와 계류장 확장, 보조활주로 최적화 활용, 편리한 공항 접근을 위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 도입 등이 갖춰지면 현 제주공항 확장만으로도 충분히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가을가뭄에 애타는 농촌 19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한 밭에서 스프링클러가 힘차게 돌아가며 물을 뿌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드론산업 육성 나선다... 조례 제정 추진

강철남 의원, 30일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체계적인 제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드론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기술들이 합쳐진 분야로 부품·제작, 첨단 비행시스템, 전문 인력 등이 융합된 산업생태계 구성으로 파급효과가 커 국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현행 제도상 정부부처가 소관 업무에 따라 드론 산업을 지원 중이지만 제주도 내의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며, 단편적인 정책추진으로 산업육성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결여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읍)이 ‘제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해 오는



강철남 의원

30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강 의원은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통해 제주의 경제발전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도 미래전략국 운영성 국장, 한국드론기업연합회 송재근 회장, 한라대 분석학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이임평 교수 등이 토론회에 나선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서귀포시 '남원읍 농촌 활성화 사업' 승인

2021년까지 사업비 80억 투입

서귀포시는 '남원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추진, 최종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남원읍 중심지 마을(남원리)을 거점화해 배후마을까지 서비스를 확대·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남원읍 농촌 중심

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운영 중이며,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52억원), 지역역량강화사업(7억원), 지역역량강화사업(21억원) 등 3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기본계획 변경사항과 관련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농식품부 최종 승인 이후 가능한 사항으로 지난 6월 사전 검토 및 변경 승인 요청서 제출해 9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기본계획변경(안)을 최종 수정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오는 21일자로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백금기자

여성애인 직업교육 수요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도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0월 한달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장애인 온라인 직업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지역 등록장애인 가운데 시설 거주를 제외한 만19세 이상 여성장애인 35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 실태, 온라인 직업교육 경험, 온라인 직업교육 선호도, 4차 산업 관련 직업 욕구 등을 조사한다.

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주지역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스마트교육 활용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오는 12월에 발간할 계획이다. 백금기자

시·도지사 “제주 자치경찰 특례 반영하라”

지방분권 촉구 공동성명 발표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과정에 전국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추진 특례 반영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분권 관련 입법 촉구와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21대 국회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련 법안의 논의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가 반영됐다.

공동성명서에서 시도지사들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되, 특례시 조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논의할 것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중요한 정책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 ▷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과정에 전국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됐다”며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지역치안서비스도 책임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확대와 그에 따른 수사권 보장, 시·도지사의 인사권·조직권 강화,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제주자치경찰의 확대추진 특례 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소통협력센터 수탁기관 모집

제주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플랫폼인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민간 위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소통협력공간은 작년 3월 제주시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관·지역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공유공간이고, 소통협력센터는 소통협력공간을 거점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해결해 나가는 사회혁신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다.

신청 자격은 사회혁신 사업과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공고일 전일 기준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동안 ▷ 소통협력공간 관리운영과 공간기반 혁신활동 지원 ▷ 주민 주도 지역밀착 생활실험(리빙랩) 지원 ▷ 혁신사례 과정 기록 및 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혁신 저변 확대 ▷ 혁신사례 발굴, 오픈 아카이브 구축 등 사회혁신 지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고를 참고해 신청서, 제안 요청서 등 서류를 갖춰 이달 29일까지 제주시 자치행결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020 한라마 생산자 역량강화를 위한 한라마 조련캠프(순차·조련) 교육과정 일시 10월 20일 ~ 11월 12일(주 4회) 오전 8시 ~ 10시(1일2회, 화·목) 장소 말조련거점센터 마장 (제주시 1100로 2805) 기간 4주 교육 김병선 교수 (제주한라대) ※ 교육비 무료, 선착순 50명 모집 참가신청 및 문의 064)743-9979 사무국장 010-6748-9888 E-mail : hallama@hanmail.net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 옥 종 010-5015-1951

그랜드보청기 호국보훈의달특별할인행사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영구 대형 혜택드립니다*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샴솨들 훈저 전화 주심서! 기다렸습다!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중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조금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심의번호 2018-GN1-11-0011 제주시청 4층 064) 755.1005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